

秋史 金正喜의 濟州島 流配漢詩文에 담긴 문학세계 탐색

- 중국문인 蘇東坡와 관련하여 -

조규백*

目 次

- I. 서론
- II. 秋史 濟州島 유배의 정치적 배경과 유배지의 자연환경
- III. 秋史 濟州島 流配漢詩文에 담긴 문학세계
- IV. 결론

I. 서론

朝鮮시대의 제주도는 전형적인 流配島嶼였다. 조선시대의 걸출한 문인이자 서화예술가, 정치가인 秋史 金正喜(1786-1856년, 향년 71세)는 濟州島에서 8년 3개월간(1840-1848, 55-63세)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는 정치적인 파란에 의해 남방의 孤島에 유배되어 절망으로 마치지 않고 그 고통을 문학과 예술로 승화시키어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다. 역경 속에서도 진지한 인생태도로 고매한 사상을 드러내었던 동시에, '환경이 곤궁할수록 더욱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낼 수 있다는 말을 실천적으로 증명해냈다'는 점에서 유배문인의 전형성을 지니고 있다.

九載行吟大海湄, 큰 바닷가에서 9년 동안을 읊조리다가
珊瑚網盡鶴歸遲. 산호를 다 거두어 학이 늦게서야 돌아왔네.¹⁾

이는 땅 설고 물 설은 제주도에서 9년의 유배생활을 통해 산호, 곧 문학창작, 학문예술의 연찬, 교학, 제주지역문화 수준의 향상 등의 보물들을 다 거두느라 鶴(추사)이 늦게서야 內地로 돌아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추사는 燕京(北京)으로 가는 사신인 부친을 따라 翁方綱, 阮元 등 당시 淸나라의 석학을 만나 金石碑帖學과 東坡風의 문인취미에 경도되게 되었다. 후에 조선 말엽의 문인들에 의해 秋史는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南秉吉, <覃學齋詩藁題辭>, 『국역완당전집1』(술출판사, 1998), 卷首, p.8. 原典影印本: 『阮堂先生全集』, 卷首, p.3.

宋나라의 蘇東坡와 비견되기도 했다.²⁾

이 논문에서는 소동파와 관련하여 秋史의 고립무원의 제주도 유배생활에서 창작한 漢詩文에 담긴 문학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가 원전을 독파해 본 결과, 추사의 제주도 유배문학이 蘇東坡의 海南島 유배문학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정부분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³⁾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겠다.

우선 텍스트를 면밀히 검토하여 핵심적 실마리를 설정하고 그것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려 한다. 그리하여 '추사의 작품에 관통하는 질서의 핵심은 무엇이며, 근본적 창작저력과 생명력의 비결은 무엇인가, 또 현대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규명해내고자 한다.

II. 秋史의 濟州島 유배의 정치적 배경과 유배지의 자연환경

유배란 정치와 깊은 관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먼저 추사 김정희의 인생을 그의 생애⁴⁾ 특히 정치생애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1. 수학기(1-33세), 2. 仕宦期(33-55세), 3. 유배와 만년(55-71세)로 3분할 수 있다.

수학기에는 1809년(24세)에는 生員試에 1등하고, 이어서 12월 淸國에 사신으로 가는 冬至兼謝恩副使 金魯敬(親父)의 燕行(北京行)에 子弟軍官으로 수행하였다. 이듬해 1810년(25세) 1월 阮元, 翁方綱을 찾아뵈고 師弟義를 맺었으며, 많은 淸의 文士와 結交하였다. 이 시기 동파를 흠모하는 옹방강의 영향으로 동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생 동파와 끊어질 수 없는 관련을 맺게 되었다. 이후에도 翁方綱 등 淸朝의 학자들과는 편지로 교류하게 된다.

- 2) 1. 『朝鮮王朝實錄, 哲宗實錄』, 哲7년 10월 11일 甲午條.
 2. 金甯漢, 〈阮堂先生全集序〉, 『국역완당전집1』(술출판사, 1998), p.1, 原典影印本:『阮堂先生全集』, p.1. 그 이유로 1. 세상에 뛰어난 재주와 나라를 빛낼만한 솜씨, 2. 해박한 견문과 풍부한 학식으로 명성이 천하에 가득함, 3. 신묘한 경지에 들어간 書法과 畫法, 4. 임금의 은총을 입어 화려한 관직을 역임하다가 중간에 정치적 禍를 만나 머나먼 변방에 유배되었으나 榮枯得失을 마음에 개의치 않고 물상밖에 초연히 우뚝 선 점(其軼世之才, 華國之手, 與文忠同焉, 博聞多識, 名滿天下者, 與文忠同焉, 書法之入神, 畫境之造妙者, 與文忠同焉, 蚤蒙天眷, 曆揚華貫, 中罹禍故, 流竄荒裔, 而不以榮枯得喪, 介其靈臺, 超然獨立於物象之美者, 一與文忠無異) 등을 들고 있다.
 3) 본 논문은 자매 논문인 필자의 A. 〈蘇東坡의 海南島 流配詩 探索〉(中國文學研究, 23輯, 한국중문학회, 2001.12) 논문과 합하게 되면 (비교문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합치기에는 논문분량이 크고, 또 독립된 논문으로도 충실한 가치를 지니므로, 각기 발표하여 독립된 논문이 되었다. A논문에서는 소동파의 해남도 유배시에 나타난 문학세계를, 1. 중원북귀의지와 제2의 고향감정, 2. 격절심경과 초탈심경, 3. 도연명에 대한 흠모와 그 일체감의 표현, 4. 해남도 풍정의 묘사, 5. 한적한 생활정취 등으로 분류하여 탐색하고 있다. A논문과 본 논문에서 동파와 추사의 島嶼 유배문학은 상당한 동질성이 있으면서도 나름의 개성적 차이점을 지니고 있음에서 착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추사의 濟州島 流配漢詩文에 담긴 문학세계 탐색에 있어, 나름대로 핵심을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생애에 대한 자료로는 1. 선종순, 〈阮堂全集 解題〉, 『국역완당전집4』(술출판사, 1997), pp.7-9. 2. 崔完秀, 『金秋史研究』(지식출판사, 1976), pp.111-121, 「연표」가 있다. 다만 3분하여 分期하고 각 시기를 修學期, 仕宦期, 流配와 晩年으로 命名한 것은 필자의 견해이다.

仕宦期에는 1819년(34세) 文科 及第하고, 1836년(51세) 4월 成均館 大司成, 7월 兵曹 參判, 1839년(54세) 刑曹參判를 역임하는 등 벼슬가도를 달렸다. 그러다가 1840년(55세) 冬至 副使로 재임할 때, 7월 10일 尹尙度 獄事 재론으로 벼슬에서 쫓겨나고, 8월에 예산 향저에서 체포되었다. 이어서 9월 2일 濟州島 大靜으로 유배되었다. 제주유배시절 1842년(57세) 후취 부인 예안 이씨가卒하고, 1843년(58세) 白波와 往復書翰으로 토론하였으며, 1844년(59세) 제자 李尙迪에게 <歲寒圖>를 그려주었다. 이 무렵 憲宗으로부터 붓글씨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가 1848년(63세) 12월 6일 濟州島 流配에서 풀려났다.

추사의 제주도 유배에 대한 정치적 배경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도의 대립은 조선시대 말기 정치권의 실상이었다. 勢道정치란 조선 정조이후 세도가에 의해 관리의 任免, 왕명의 출납, 상주건의, 군기 국무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정사가 좌우되는, 일종의 信任정치이다. 憲宗시대는 내외외환으로 후기 조선사회의 붕괴조짐이 드러나던 시기였다. 특히 純祖시대부터 시작된 세도정치의 여파로 민생의 어려움이 그치지 않았다. 세도는 正祖시대 이후 조정의 대권을 위임받아 독재를 하기 시작한 데서 변질되어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나 외척들이 독단으로 정권을 휘두르는 것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세도정치 초기에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일족간에 권력장악을 위한 대립이 있었는데 이 알력과정에서 김정희는 제주도에 유배된다. 추사는 北學派 朴齊家를 첫 스승으로 모시면서 실학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燕京방문으로 淸나라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 새로운 학문의 방법론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약관의 나이에 몸소 實事求是 학파의 원류로서 두각을 나타낸 조선 후기의 큰 인물이라 할 수 있다. 1840년의 尹尙度 獄事가 재론되었는데 이는 政敵의 인신공격적 성격의 상소로 인한 옥사이다. 추사는 이에 연좌되게 된다. 이전까지는 평탄하게 벼슬길을 걷다가 이 사건으로 55세 때 제주도 大靜縣으로 유배되어 종신 무기수로서 9년을 지내게 된다.⁵⁾ 추사의 유배의 정치적 요인은 조선말기의 세도정치의 소용돌이에 휘감긴 때문이었다. 絶島 圍籬安置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는 것으로 당시 유배 중에서도 극형이었는데, 추사는 대신 노비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

이제 제주도 유배지의 자연환경을 파악해 보겠다.

추사는 배를 건너 제주도 北岸에 있는 和北에 도착하였고, 이어서 유배지 大靜에 도착하였다. 추사가 謫居한 大靜縣은 동남녘의 簞山과 동쪽의 山房山 등 빼어난 산이 있고, 남쪽으로 태평양이 접해있는 아름답고 바람이 많은 곳이다. '특히 簞山은 뼈대가 있는 骨山으로, 높지는 않지만 굳센 뼈대 곧 정신적인 기개를 느끼게 하는 산이다. 부드러운 흙은 훌훌 털어 버리고 독특한 뼈대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인간의 욕심, 욕망, 명성에 대한 바램은 털어 버린 신념과 의지의 표상이기도 하다. 내면에 응축된 힘이 산세를 이루었다. 인간은 날마다 바라보는 것을 닮는 다는 것을 전제하면, 추사는 이 산을 날마다 바라보았고, 이 단산과 남쪽 너른 바다가 추사 자신의 존재를

5)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 제주도 유배인 열전』(문학과 지성사, 1999), pp.192-193.

생각하게 하고, 그의 정신에 녹아 들어가 추사체와 시와 문장을 이루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⁶⁾ 추사가 제주도 대정의 유배지에서 거주했던 집은 「大靜縣 城內의 宋啓純家 - 姜道淳家 - 창천리의 謫所」의 차례로 옮겨졌는데, 이 모두 大靜縣에 속한다.

추사가 본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벗 權敦仁에게 보내는 다음 편지에 함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다가 벌레와 뱀까지 따라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반 자나 되는 지네와 손바닥만한 거미들이 枕席을 횡행하는가 하면, 처마에서는 새끼 가진 참새가 날마다 뱀을 경계하여 지저귀곤 하는데, 이는 모두 육지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5월 그믐 사이에는 대단히 무서운 비바람을 한 차례 겪었습니다. 이때에 기왓장과 자갈은 공중을 날아다니고 큰 나무는 뽑혀 넘어져서 뿌리가 서로 언했으며, 바다에는 파도가 새까맣게 솟아오르고 그 가운데서는 천둥소리가 일어나는지라,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나란히 하고 무릎을 맞댄 채 서로 꼭 껴안으며 마치 스스로 보존하지 못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사람들이 말하기를, “甲寅년에 큰바람이 있은 이후 4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질병 이외에도 겪은 고통이 또 어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운명에 맡기고 이것들과 더불어 위아래로 미루어 변천하여 천신만고 속에 자신을 연마하고 인내하면서 겪어 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

그러나 한라산 주위 400리 사이에 널려있는 아름답고 진기한 柑, 橙, 橘, 유자(柚) 등은 사람마다 다같이 아는 바이거니와, 이 밖의 푸른빛이 어우러진 奇木名卉 들은 거의가 겨울에도 푸른 식물로서 모두 이름도 알 수 없는 것들인데, 여기에 나무하고 마소 먹는 것을 금하지 않으니, 이것이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한라산의 靈異하고 충만한 기운 또한 초목에만 모였을 뿐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 기운이 사물에만 모이고 사람에게는 모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重之蟲虺，從以惱之。半尺之蜈蚣，掌大之蜘蛛，橫行枕席，簷際乳雀日以警蛇，皆北地所未見。五月晦間，經一風雨大劫。瓦石飛舞空際，大樹倒拔連根，海濤黑立，中作霹靂，人皆并頭接膝，互相抱持，若不能自保者然。此中人以爲甲寅大風後，四十八年初有云。病況以外所經歷，卽又如如是矣。惟是任運，與之上下推蕩。磨鈍於千苦，消受於百辛，無所不閱過耳。..... 然環漢擊四百里之間，柑橙橘柚之嘉珍，人所共知者。外此奇木名卉，蔥青交翠，舉皆冬青，皆不能知名，樵牧無禁，甚可惜。..... 漢擊靈異磅軋之氣，鍾在草木而耳耶。豈鍾於物而不鍾於人也。⁷⁾

벌레, 뱀, 지네 등 동물이 극성이고 거센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유배지의 자연환경을 묘사하고 있다. 동시에 아름답고 진기한 감(柑), 등(橙), 귤(橘), 유자(柚) 등과 기이한 나무와 이름난 화초가 한라산 자락에는 너무 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추사는 漢擊山의 신령스런 기운이 초목에만 몰려있고, 사람에게에는 모이지 않고 있음도 토로하고 있다.

6) 2002.1.30. 金順伊시인과의 대담에서 그의 견해를 참고하였다.

7) 〈與權彝齋敦仁，其五〉, 『국역완당전집1』(솔출판사, 1998), p207, [原典影印本], 『阮堂先生全集』, 권3. p.90. (『國譯阮堂全集(1-3)』의 경우, 제1권, 제2권에는 『阮堂先生全集』이, 제3권에는 阮堂全集이 影印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의 쪽수는 앞의 것이 국역본, 뒷부분이 影印된 阮堂集의 쪽수이다. 다만 인용시문의 번역은 국역완당전집과 정후수의 번역을 참조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필자의 견해를 부가시켰다. 以下 同)

Ⅲ. 秋史의 濟州島 流配漢詩文에 담긴 문학세계

우선 추사의 詩, 書簡文, 藝術에 대한 특징을 선인의 평을 통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제주유배이후의 書法과 詩에 대한 선인의 평가를 보자.

彝齋 權敦仁이 公의 書法을 논하여 말하기를, “제주로 유배된 이후의 阮堂의 서법은 마치 子美(杜甫)의 夔州 이후로 지은 시나 子厚(柳宗元)의 柳州 이후로 지은 문장과 같다.”고 하였다. 나는 말하건대, 그의 시 또한 그의 서법과 같아 그 신통하게 깨달은 오묘함이 절로 神出하고 예스럽고 기이하여 담박함을 다 거둘 수 없다.

彝齋權相公論公書曰, 阮堂濟州以後書, 如子美夔州以後詩, 子厚柳州以後文. 余則曰, 詩亦如其書, 其靈警悟入之妙, 自有神出古異, 澹不可收者矣.⁸⁾

여기서 申錫禧는 추사의 제주유배이후의 서법을 극히 칭찬하고 있는 權敦仁의 평을 빌어, 추사의 시 또한 서법과 같아, 신통하게 悟入한 妙가 저절로 神出하며 예스럽고 기이하여 매우 담박하다고 하여 극찬하고 있다.

내가 일찍이 마음속으로 阮堂 金正喜의 翰墨을 사모하였으니, 대체로 그 精華가 말 밖에 넘쳐흐르고 신묘함이 墨痕에서 생동하여 충분히 사람들의 문아한 마음과 운치를 감발시킬 만하였다. 만일 뛰어난게 고상하고 예스러운 것이 아니면, 어찌 능히 여기에 이를 수 있겠는가.

선생 같은 학식으로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시는 약간 정도가 있고, 文도 전한 것이 드문데, 오직 이 尺牘은 비록 咳唾의 나머지라고는 하지만, 혹은 經史, 百家와 古文, 詩詞를 논하였고, 혹은 佛老, 金石과 楷書와 隸書, 名物 등을 고증하면서, 고금을 드나들어 우뚝이 홀로 깊은 경지에 들어감으로써, 香象과 文豹가 紙墨 사이에 달리어 은은히 비추이니, 문장의 전형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余嘗竊慕金公阮堂所爲翰墨, 蓋其精華溢於辭表, 神妙動於墨痕, 有足以撼發人之文心雅韻. 如非高古出群, 其何能與於是哉. 詩存畧千, 文亦罕傳, 而惟是尺牘, 雖云咳唾之餘, 或論經史百家古文詩詞, 或證佛老金石楷隸名物, 出古入今, 卓然孤詣, 香象文豹奔走隱映於楮墨之間, 文章典型, 不其在茲乎.⁹⁾

여기서 南相吉은 추사의 翰墨이 “精華가 말 밖에 넘쳐흐르고 신묘함이 墨痕에서 생동하여 충분히 사람들의 문아한 마음과 운치를 감발시킬 만하였다”고 극찬하고, 특히 秋史 書簡(尺牘)에 대해 ‘고금을 드나들어 우뚝 깊은 경지에 들었으니, 문장의 전형이 여기에 있다’고까지 말하여, 그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8) 申錫禧, 〈覃擘齋詩集序〉, 『국역완당전집1』(술출판사, 1998), p.7. 『阮堂先生全集』, 卷首, p.3.

9) 南相吉, 〈阮堂尺牘序〉, 『국역완당전집1』(술출판사, 1998), p.9. 『阮堂先生全集』, 卷首, p.4.

1. 정치중심지로의 복귀의지와 유배지 적응의지

朝鮮王朝時代에 있어 유배인의 가장 보편적 태도는 君主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 다짐이었다. 마음 자체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 대다수는 미래 언젠가는 다시 정치중심지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秋史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북두를 비껴서 애써 서울을 바라보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無日不倚斗勞勞.¹⁰⁾

다만 敎文이 아직 이르지 않아 날마다 두 손 모아 기다릴 뿐이네. 작년에도 2월초에야 이르렀으니, 바다 밖의 일은 매양 이러한지라 애가 타고 답답함을 감당치 못하겠네.
策敎文, 姑未來到, 日日攢手以俟耳. 去年亦於二月初來到. 隔海之事, 每如是. 不勝焦鬱.¹¹⁾

위의 두 예문에서 그가 매일 북쪽 정치중심지(漢城: 현재의 서울)를 향하고 있고, 또 북쪽으로부터 解配통지서(敎文)가 도착하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음을 묘사하였다.

不算話中與苦邊, 기쁨과 괴로움을 헤아리지 않고
天風一笠亦隨緣, 하늘바람 부는 대로 샷갓 쓰고 또 인연 따라 오간다.
飄零白髮三千丈, 휘날리는 백발이 삼천 길
折磨紅塵六十年, 흥진에 시달린 육십 년 세월
我愛沈冥頰中聖, 나는 세상일 잊으려고 자주 청주를 마시는데
人憐遠謫漫稱仙, 사람들 귀양살이 가엾게 여겨 부질없이 신선이라 칭해주네.
蹣跚簷底時行藥, 처마 밑으로 절뚝절뚝 약효 내려고 어슬렁거리며
消受茶罇伴篆烟, 차 달이는 화로에 篆字같은 연기 술술 피어오름을 즐긴다.¹²⁾

정치중심지를 향한 복귀의 의지에 반해, 그에게는 하늘 바람에 따라 샷갓 하나 쓰고 인연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인생관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 듯 언 듯 세상 일, 정계의 일 등에 시달린 60년 세월이 생각나 그것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그의 이러한 유배생활을 역설적으로 「신선」이라고 칭해주었다(제6구)고도 한다.

2. 隔絶심경과 초탈지향

우선 이상을 추구하는 작자 자아와 유배지의 열악한 현실세계가 깊은 괴리감을 주었다는 전체

10) 〈與權彝齋敦仁〉, 其五, 『국역완당전집1』(술출판사, 1998), p.207. 『阮堂先生全集』, 卷三, p.90.

11) 〈與舍季其相喜〉, 其七, 『국역완당전집1』(술출판사, 1998), p.147. 『阮堂先生全集』, 卷二, p.66.

12) 〈偶作〉, 『국역완당전집3』(술출판사, 1996), p.147. [原典影印]: 『阮堂全集』, 卷九, p.31.

를 설정하고,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또 어떻게 격절심경을 초탈로 전환시켰나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那將月姥訟冥司, 어떻게 저승에 가 月姥께 하소연하여
來世夫妻易地爲, 그대와 나 서로 내세에 땅을 바꿔 태어나
我死君生千里外, 나 죽고 천리 밖에 그대 살아서
使君知我此心悲, 이내 마음 쓰라림 알게 했으면.¹³⁾

여기서는 추사가 제주 大靜 유배지에서 內地에 있었던 아내의 訃音소식을 들은 후의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큰 병을 치른 이래로 회포가 산란한데다 다시 외로운 인생이 의탁할 데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즉시 높으신 서한을 받아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서 반복하여 눈으로 보며 읽으니, 靑雲에 의지하여 붙인 데 대한 든든함이 몸을 보호하는 주술이나 질병을 물리치는 符籍도 이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大病以來, 心緒忽忽, 更覺孤寄無託, 卽奉崇函, 溫存懷袖之間, 廻環口眼之際, 依附靑雲, 護身之呪, 辟病之符, 無以多焉.¹⁴⁾

그는 제주에서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려 심사가 편안치 않았다. 여기서 추사는 벗 權敦仁이 보낸 편지를 받은 후의 즐거움을 묘사하고 있다. 외롭고 依託할 곳이 없던 당시, 그는 멀리 정치중심지(漢城)로부터 온 벗의 서신이 몸을 보호하는 주술(護身之呪)이나 병을 물리치는 부적(辟病之符)보다 더 낫다고 하였다.

『文編』(『經世文編』)에는 과연 재미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 그러나 누구와 함께 맛볼 길이 없어 혼자서 보아 넘기노라니, 또한 무슨 맛이 있겠는가?
文編中, 果有可喜處非一二, 無緣共嘗, 獨自看過, 亦有何意趣耶.¹⁵⁾

추사는 학자가 되어 학문을 토론할 벗이 없는 고뇌를 아우에게 토로하고 있다. 그는 유배지에서 홀로 독서하여 心得이 적지 않았지만, 혼자 그 맛을 감상할 수밖에 없고,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눌 친구가 없어 그 맛을 혼자 감상할 수밖에 없으니 그 깊은 맛은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다.

다만 온갖 번뇌에 대하여는 허심하게 받고 굳건히 이겨내야만 하며, 만약 그와 더불어 경우에 따라 출렁대고 휘말린다면 한 조각의 마음(靈臺)만 어지럽힐 뿐 조금도 이익이 없습니다. 곧 군자의 進退와 存亡 또한 그 바른 義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13) 〈悼亡〉, 『국역완당전집3』(솔출판사, 1996), 卷十, p. 297. [原典影印] 『阮堂全集』, 卷十, p.78. 一作, 〈配所賴妻喪〉

14) 〈與權彝齋敦仁〉, 『국역완당전집1』(솔출판사, 1996), p.213. [原典影印] 『阮堂先生全集』, 卷三, p.93.

15) 〈與舍季相喜, 其四〉, 『국역완당전집1』(솔출판사, 1998), p.137. [原典影印] 『阮堂先生全集』, 卷二, p.62.

只是虛受而大耐，若與之隨境波蕩，徒亂一片，少無利益，即亦君子之進退存亡，不失其正之義耳，未知何居。¹⁶⁾

여기서는 그가 虛心과 인내로 번뇌를 대응하고, 의연한 심정으로 군자의 군자의 진퇴와 存亡을 생각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行當騎馬過桑田， 장차 말을 타고 桑田을 지나려니
可笑秦童弱水船， 秦나라 동남동녀들 弱水에 배탄 것 가소로워라.
始識神山非別處， 이제야 알겠네, 神仙山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聖恩不死即神仙， 임금의 은혜로 죽지 않음이 바로 신선이리.¹⁷⁾

그는 현실세계 자체에 신선의 세계, 이상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고자 하는 강렬한 생명력과 의지를 표현했다. 신선세계는 바로 유배 속에서도 살아나가는데 있으며, 자신이 바로 그러한 신선 가운데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마음에 瘴氣가 아니 낀다면 어디를 가든 淸淨法界가 아니겠는가?
9년 동안 장기에 익혀져서 장기 속에서 밥을 먹고 장기와 더불어 잠을 자곤 하여 마치 서울 白岳의 아침 안개나 仁王山의 저녁 노을처럼 똑같이 보아왔지요. 다만 늙은 기운이 삭고 남아서 拘攣의 증세가 자못 움직이는데 괴롭히지만 역시 내말길 뿐입니다.
心若不瘴，安往而非淸淨法界也。九年習瘴，與瘴爲食，視同白岳之朝嵐仁王之夕霞。但老氣朽殘，九攣之症，頗惱動轉，亦復任之耳。¹⁸⁾

이 문장의 “마음에 瘴氣가 아니 낀다면 어디를 가든 청정법계가 아니겠는가?(心若不瘴，安往而非淸淨法界也)”는 마음에 번뇌가 없다면 어딜 가든 청정법계라는 것이다. 이는 인생을 긍정하는 낙관적 사고의 표현인, 蘇東坡의 “어디에 가도 즐겁지 아니하라(安往而不樂)”¹⁹⁾라는 관점과 상통하고 있다. 추사는 제주도의 瘴氣를 서울(漢城)의 白岳(北岳山)의 아침안개나 仁王山의 저녁노을과 같다고 보고 있다. 이는 발상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3. 중국문인 蘇東坡에의 경도와 그 일체감의 표현

중국 北宋의 蘇東坡가 東晉과 宋의 교체기의 저명한 은일시인인 陶淵明을 인생과 문학을 흠모 하여 자신의 모범으로 삼았듯이, 추사는 소동파의 행적과 사상에서 자신과의 일치점을 발견하고

16) 〈與張兵使寅植，其九〉，『국역완당전집2』(솔출판사, 1996), p.65. [原典影印] 『阮堂先生全集』，卷四，p.24.

17) 〈次癸詹三首，其三〉，『국역완당전집3』(솔출판사, 1996), p.238. [原典影印] 『阮堂全集』，卷十，p.58.

18) 〈與張兵使寅植，其六〉，『국역완당전집2』(솔출판사, 1996), p.52. [原典影印] 『阮堂先生全集』，卷四，p.19.

19) 〈超然臺記〉，『蘇軾文集』(中華書局, 1990)，卷11，p.351.

있다. 제주에 유배 온 후 더욱 동파에게 관심을 가지고 경도하게 된다.

秋史(阮堂)이 소동파를 접하게 된 것은 24-25세 젊은 시절 당시 淸의 석학 翁方綱을 통해서였다. 옹방강은 소동파를 무척 좋아하여 그 서재를 '寶蘇齋'라 했을 뿐만 아니라 '東坡의 化身'이라고 할만큼 동파를 사숙하였다. 심지어 외모까지 닮아서 왼쪽 목 뒤에 큰 혹이 있는 것까지 동파와 같았다고 한다. 옹방강의 보소재에는 송나라 李龍眠이 그린 「東坡立履像」, 宋나라 趙子固가 벼루 뒷면에 그린 〈東坡笠履小像〉 속칭 「研背本」, 그리고 明나라 唐寅이 그린 〈蘇文忠公笠履圖〉 세 폭이 있었다. 옹방강은 해마다 소동파 생일인 (음력) 12월 19일이 되면 소동파의 친필 〈天際烏雲帖〉과 東坡詩集(宋槧注 東坡先生詩殘本 4函 31책)을 이 세 폭의 초상화 앞에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阮堂은 燕京에 갔을 때 이 소동파의 초상화와 진적을 모두 拜觀하였고, 훗날 그것을 회상하는 시도 지은 바 있다. 스승 翁方綱은 소동파의 초상화를 모사하여 완당에게 선물로 보낸 것이 있다.(간송박물관 소장) 또 완당에게 중국의 초상화를 많이 임모하여 보내준 朱野雲은 〈東坡笠履圖〉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완당이 사모하는 소동파란 그의 빼어난 문장과 글씨였지 원우의 죄인이 되어 笠履 차림으로 세상과 쓸쓸히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데 완당은 제주에 온 이후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자신의 처지가 더욱 말년의 소동파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²⁰⁾

소동파의 초상화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이 벽에 걸게 될 줄을 어찌 헤아렸겠습니까? 호신 부로 간주하고 혈혈단신으로 이에 의뢰하여 의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그대가 은총을 베풀음이 주도하고 진지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坡像豈料此圖之掛之此壁耶. 替作護身, 單隻托賴, 可以倚重, 亦崇注之無處不周擊之也.²¹⁾

이처럼 추사는 제주에서 소동파의 초상화를 자신의 護身符로까지 여기었다. 이는 그만큼 동파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지켜 달라는 회구의 표시였다. 아울러 열악한 해남도 유배생활에서도 의연함과 초탈함을 잃지 않았던 동파와 같은 정신을 키우고자 했다.

覃溪는 “古經을 즐긴다”라고 하였고, 芸臺는 “남이 말했다고 해서 나 역시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두 분의 말씀이 나의 평생을 다한 것이다. 어찌하여 海天의 한 샷갓 쓴 사람이 갑자기 元祐의 죄인²²⁾과 같은가.

覃溪云嗜古經, 芸臺云不肯人云亦云. 兩公之言, 盡吾平生, 胡爲乎海天一笠, 忽似元祐罪人.²³⁾

20) 유흥준, 『완당평전2』(도서출판 학교재, 2002), pp.502-503.

21) 〈與權彝齋敦仁〉, 其十, 『국역완당전집1』(솔출판사, 1998), p.220. [原典影印] 『阮堂先生全集』, 卷三, p.94.

22) 元祐의 죄인: 元祐는 北宋 哲宗의 年號(1-8년)로, 당시 10세이던 철종을 대신해 太皇太后 高氏가 垂簾聽政을 하였다. 이 때는 바로 신법을 반대한 舊法黨이 得勢한 시기이다. 동파는 이 8년의 기간에 禮部郎中(50세), 起居舍人, 中書舍人, 翰林學士知制誥, 翰林學士(52-54), 知杭州, 翰林學士承旨, 知潁州, 知揚州, 兵部尙書, 兵部尙書兼侍讀, 禮部尙書(58세) 등 중앙의 고관과 지방의 벼슬을 잇달아 역임하였다. 바로 이 이후인 紹聖연간에는 철종이 親政體制로 전환하여, 동파는 惠州(59-62세)와 海南島(62-65세)로 유배가게 된다.

추사는 覃溪(翁方綱)처럼 好古의 기풍이 있어 옛 경전을 즐겼다. 또 그는 芸臺(阮元)처럼, 남의 말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창적인 언어로 사물을 설파하였다. 이것이 그때까지의 추사였다. 그런데 제주에 유배와 지내면서 생각할수록 갑자기 海天의 샷샷 하나 쓴 자신이, 점점 元祐시절에 득세하였다가 그 이후에 政敵에 의해 惠州와 海南島에 유배되었던, 소동파와 같아진다고 하였다.

이제 긴 詩題인 〈天賚 허소치가 나의 '笠履圖'를 빌려 가지고 가다가 비바람을 만나 물에 떨어뜨릴 뻔했는데, 英靈이 보호하여 지극한 보배를 보존하게 되었다. 편지가 와서 알게 되어 이렇게 위로한다. '笠履圖'는 바로 趙孟堅이 벼루 뒤에 새겼던 원본이었다.(天賚借余笠履圖去, 值風雨幾乎落水, 英靈所在至寶是保, 書來相慰. 笠履圖是趙子固硯背本也)〉 시를 보자.

落水蘭亭念念塵, 옛날 蘭亭帖처럼 물에 떨어졌던 이 그림 생각하니 티끌일 뿐
千川明月宰官身. 밝은 달 千江에 비추니 宰官의 몸이라.
蒼茫七百餘年後, 까마득히 (동파보다) 칠백여 년 후에
又接人間笠履因. 지금 인간세상에서 笠履圖로 또 (동파와) 인연을 맺게 되었구나.²⁴⁾

여기서 추사는 제자 許小癡가 빌려갔다가 가는 길에 비바람을 만나 물에 떨어뜨릴 뻔했던 趙孟堅의 硯背本 〈東坡笠履圖〉를 통해, 더욱 강렬하게 동파와 인연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離合悲歡十二時, 하루 열두 시로 이별과 만남 기쁨과 슬픔이 서려
一廻圓缺一廻思. 어떤 때는 둥글다가 이지러지더니 어떤 때는 슬퍼라.
前身自來天上, 前身이 본래 천상에서 내려 왔으니
除却君王揔不知. 조물주가 아니고는 다 알 수 없으리.²⁵⁾

이 시의 1, 2구에서는 동파의 “사람에게는 슬픔과 즐거움 이별과 만남이 있고/ 달에게는 흐름과 맑음, 둥그러짐과 이지러짐이 있네(人有悲歡離合, 月有陰晴圓缺)”²⁶⁾의 詞句를 원용하고 있다.

4. 濟州島 風物의 美와 수선화에의 자아형상 반영

추사는 濟州 風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고, 수선화 가운데 자아의 형상을 투영하기도 했다.

이곳에는 甘露樹가 있어 나무의 굵기는 겨우 한 뼘 혹은 두세 뼘쯤 되기도 하는데, 그 밑동

23) 〈又自題小照, 在濟州時〉, 『국역완당전집2』(술출판사, 1996), p.274. [原典影印] 『阮堂先生全集』, 卷六, p.103.

24) 『국역완당전집3』(술출판사, 1996), p.201. [原典影印] 『阮堂全集』, 卷十, p.48.

25) 〈次癸詹三首, 其二〉, 『국역완당전집3』(술출판사, 1996), p.234. [原典影印] 『阮堂全集』, 卷十, p.54.

26) 〈水調歌頭〉(明月幾時有), 『蘇軾詞編年校註』(中華書局, 2002. 9), p.173.

을 자르면 나무의 즙이 폭포처럼 솟아 나와 한 나무에서 물을 큰 병으로 하나 가득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은 마치 유천(乳泉)과 같고 단맛은 上品의 石蜜과 같아 맑고 차가우면서도 향기가 있어, 다른 꿀의 달기는 모두 이만 못하니, 참으로 기이한 產品이라 하겠습니다. 仙家의 瓊漿, 玉液이라는 것도 아마 이보다 좋지 않을 듯합니다 이 나무는 깊은 산에 있는데, 간혹 많이 볼 수도 없고 이곳 사람들 또한 알지 못합니다.

연전에 도인 같은 한 行脚僧이 바다를 건너와 산에 들어갔다 목이 매우 마르자 그 나무를 자르고 물을 받아 마셨다고 하는데, 그때 나무꾼 한 사람이 곁에서 그 광경을 보고 그 사실을 잘 말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그 나무꾼으로부터 그것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 소문이 전파하여 이 섬의 큰 걱정거리가 될까 염려되기 때문에 또한 비밀에 부치고 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3, 4일의 일정이라면 이것을 전달할 수가 있겠으나, 온갖 계책을 헤아려 보아도 멀리 가져갈 방도가 없어 우러러 바치지 못하니, 매우 한탄스럽습니다.

일찍이 본 것을 기억하건대, 宋元 무렵 사람이 저술한 책에 남방의 초목들을 기록한 것에 의하면 '나무의 즙이 甘露와 같다'고 한 말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나무를 가리킨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책 속에서 본 것만도 하나의 奇聞이었는데, 이렇게 기이한 맛을 입으로 직접 맛볼 줄을 어찌 헤아렸겠습니까. 그대께 이 사실을 우러러 진술하여 바다 밖(海外)의 기이한 견문을 넓혀드리지 않을 수 없어 말씀드립니다.

此中有甘露樹, 樹身大匭一握, 或二三握, 截其本則樹汁, 湧如瀑泉, 一本可得水一大瓶, 水如乳泉, 味甘如石蜜, 上品清冽有香, 他蜜之味, 皆不如也. 儘奇品異產矣. 仙家之瓊漿玉液, 恐不多於是. 樹在深山, 或有遇之而不多見. 此中人亦不知也. 年前行脚, 如道人者, 渡海而來, 入山渴甚, 取其樹, 截而飲之. 其時樵夫一人, 旁見之, 能道其事. 今從樵夫得之, 恐其傳播, 而爲此島大患. 故亦秘而不發. 若三四日程, 則可以傳達, 而百計籌量, 無遠致之道, 不得仰呈, 極可歎耳. 曾記宋元間人所蓄, 錄南方草木, 有云樹汁如甘露者. 未知是樹歟. 書卷中見之, 亦一奇聞, 而豈料口嘗異味如是耶. 不得不仰陳於閣下, 以廣海外異聞耳.²⁷⁾

위에서 추사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특이한 나무 甘露樹(아마 고로쇠나무인 것 같다)의 형상과 효용과 발견 경위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하여 벗 권돈인에게 편지로 알리고 있다. 더불어 중국 宋元 무렵의 책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러한 甘露樹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매화, 대나무, 연꽃, 국화는 어디에도 다 있지만 굴만은 오직 내 고을의 전유물이다. 골과 속이 다 깨끗하고 빛깔은 푸르고 누르데, 우뚝한 지조와 꽃답고 향기로운 덕은 類를 취하여 物을 비유할 수 없다. 나는 그로써 내 집 현판의 호(額號)를 삼는다.

아! 연뿌리의 구멍(藕孔)과 겨자씨(芥子)는 각기 세계를 갖추고 있으며, 바늘구멍(鍼孔)과 線蹊는 九州보다 크다. 바둑을 두고 鶴으로 화하여도 막히고 걸릴 것이 없다. 저 하늘같이 높아 위로 덮고 넓고 두터워서 아래로 실은 것도, 또 어찌 알리오. 하나의 큰 껍질의 속이 아닐까! 이에 인하여 시로써 붙이노라.

梅竹蓮菊, 在在皆有之, 橘惟吾鄉之所獨也. 精色內白, 文章青黃, 獨立之操, 馨香之德, 非可取類而比物. 吾以顏吾屋.

噫, 藕孔芥子, 各具世界, 鍼孔線蹊, 大於九州. 彈碁化鶴, 無所遮礙. 彼穹然上覆, 隕然下載者, 又安知非一大殼之內也, 仍系之以詩.²⁸⁾

27) <與權彝齋敦仁, 其十>, 『국역완당전집1』(술출판사, 1998), p.220. [原典影印] 『阮堂先生全集』, 卷3, p.95.

28) <橘中屋序>, 『국역완당전집2』(술출판사, 1996), p.222. [原典影印] 『阮堂先生全集』, 卷六, p.83.

여기서는 추사가 제주 특산물인 귤의 특징을 외모, 빛깔, 성품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귤의 우뚝한 절조와 고상한 덕을 기리어, 자기 집의 현판의 號로 삼았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

연뿌리나 겨자씨같이 아무리 작은 것도 각기 하나의 세계를 이루며, 바늘구멍과 線蹊같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九州보다도 클 수가 있다. 그리고 天地같이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하나의 큰 껍질의 속이 아니라! 사물을 상대적 관점에서 보는 莊子風의 문장이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제주도라는 絶島의 圍籬安置 유배도 크게 어려울 것은 없다는 것을 암암리에 설파하고 있다.

수선화는 과연 천하의 큰 구경거리입니다. 江浙이남 지역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곳에는 촌 동네마다 한 치, 한 자쯤의 땅에도 수선화가 없는 곳이 없는데, 花品이 대단히 크고 한 송이가 많게는 열 대여섯 꽃송이에 꽃받침이 예닐곱이랍니다. 그 꽃은 정월 그믐께부터 2월초에 피어서 3월에 이르러서는 산과 들, 밭두둑 사이가 마치 흰 구름이 질펀하게 깔려 있는 듯 또는 흰 눈이 장대하게 쌓여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착민들은 이것이 귀한 줄을 몰라서 소와 말에게 먹이고 또 따라서 짓밟아버리며, 또한 그것이 보리밭에 많이 난 때문에 시골의 장정이나 아이들이 한결같이 호미로 파내어 버리는데, 파내도 다시 나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수 보듯 하고 있으니, 사물이 제자리를 얻지 못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水仙花果是天下大觀. 江浙以南未知如何, 此中之里里村村, 寸土尺地, 無非此水仙花, 花品絕大, 一朵多至十數花. 八九萼五六萼, 無不皆然. 其開在正晦二初, 至於三月, 山野田壟之際, 漫漫如白雲, 浩浩如白雲. 土人則不知貴焉, 牛馬食齷, 又從而踐踏之. 又其多生於麥田之故, 村丁里童, 一以鋤去, 鋤而猶生之故, 又仇視之. 物之不得其所, 有如是矣.²⁹⁾

여기서는 추사는 자신의 유배 당시 제주도에 지천으로 있는 수선화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수선화의 수난을 빌어 자신도 때를 만나지 못해 유배되어 있는 경우를 상기시키고 있다. 그는 만물은 “제 자리를 차지하여야(得其所)” 하며, 자신도 마땅히 “제 자리를 차지해야 함(得其所)”을 암암리에 천명하고 있다.

一點冬心朵朵圓, 한 점의 겨울 마음 송이송이 둥글구나
品於幽澹冷雋邊. 기품이 그윽하고 담담하며 썰렁하고 빼어났네.
梅高猶未離庭砌, 매화가 격조가 높지만 뜰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清水眞看解脫仙. 맑은 물에 참으로 해탈한 신선을 보는가.³⁰⁾

1, 2구에서 수선화의 특징을 冬心, 송이송이 둥글음, 그윽한 기품, 담담하고 썰렁함, 그리고 빼어남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격조는 높지만 뜰을 못 벗어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매화

29) 〈與權彝齋敦仁, 其五〉, 『국역완당전집1』(술출판사, 1998), p.207. [原典影印] 『阮堂先生全集』, 卷三, p.90.

30) 〈水仙花〉, 『국역완당전집3』(술출판사, 1996), p.246. [原典影印] 『阮堂全集』, 卷十, p.62.

에다가 수선화를 대비하고 있다. 여기서 수선화를 해탈한 신선으로 격상시키고 있는데, 동시에 시인 자신을 수선화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碧海青天一解顏, 푸른 바다, 푸른 하늘에 얼굴에 한번 웃음 띠니
仙緣到底未終慳. 신선의 인연이란 아무래도 인색한 게 아니로다.
鋤頭棄擲尋常物, 호미 끝에 버려진 평범한 꽃 너를
供養窈明几淨間. 깨끗한 창가에 고이 옮겨 심고 받들어 키운다.³¹⁾

〈수선화가 도처에 즐비해서 골짜기로 헤아릴 만하다. 밭이랑 사이에는 더욱 무성하게 자랐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무슨 물건인지 몰라, 보리밭 갈 때면 호미로 모두 뽑아 버리고 만다(水仙花在在處處可以谷量, 田畝之間尤盛, 土人不知爲何物, 麥耕之時盡爲鋤去)〉는 긴 제목의 시이다. 이는 黃州유배 시절 동파의 〈정혜원의 동쪽에 여러 가지 꽃이 산에 가득한데, 해당화 한 그루가 있어 이 지방사람들은 그 귀함을 알지 못하더라(寓居定惠院之東, 雜花滿山, 有海棠一株, 土人不知貴也)〉³²⁾ 시와 제목의 길이, 발상, 꽃에의 자아반영 등 그 유형이 비슷하다. 소동파가 해당화에 유배되었지만 고결함을 지키는 자신의 이미지를 부치었듯이, 추사도 수선화에 자신의 고결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一切天葩元不染, 일체가 하늘의 꽃 원래 티끌에 물들지 않았었는데
世間亦復歷千艱. 인간세상에서 다시 온갖 곤경 다 겪는구나.³³⁾

여기서 하늘의 꽃 수선화가 티끌에 물들지 않았는데 지금 세간에서 곤경을 겪고 있음을 빌어, 제주까지 유배된 추사 자신의 艱難스런 遭遇를 상징하고 있다. 여기서 작자는 수선화와 동병상련의 감정을 지니고 있다.

5. 독창적 예술세계의 구현

이 절에서는 추사의 예술작품 자체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예술세계에 나타난 문학적, 정신적 의미파악에 주안점을 두겠다.

죄는 극에 달하고 불화가 산처럼 높이 쌓인 이 공적 없는 죄인이 어떻게 오늘날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다만 감격의 눈물이 얼굴을 덮어 흐를 뿐이요,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더구나 또 나의 졸렬한 글씨를 특별히 생각하시어 종이를 내려보내시기가

31) 『국역완당전집3』(솔출판사, 1996), p.247. [原典影印] 『阮堂全集』, 卷十, p.62.

32) 『蘇軾詩集』(中華書局, 1987), 卷20, p.1036.

33) 〈年前禁水仙花〉, 『국역완당전집3』(솔출판사, 1996), p.248. [原典影印] 『阮堂全集』, 卷十, p.62.

지 하였으니, 임금의 은혜를 입은 곳에 대해 大海神山이 모두 진동을 하네.

근래에는 안질이 더욱 심해짐으로 인하여 도저히 붓대를 잡고 글씨를 쓸 수가 없었으나, 王靈이 이른 곳에 15-16일간의 공력을 들어, 겨우 扁額 셋과 卷軸 셋을 써 놓았을 뿐이네. 그리고 나머지 두 卷軸에 대해서는 이렇듯 흐린 눈으로는 도저히 계속해서 써낼 방도가 없어 부득이 또다시 바치게 될 것이네. 두 편액은 西漢의 옛 법칙대로 써서 제법 씩씩한 기개가 있으니 병중에 쓴 것 같지 않았네. 이는 곧 王靈이 이른 곳에 神明의 도움이 있었던 듯하니 나의 졸렬한 필력으로는 능히 할 바가 아니네.

罪通有頂, 疊積如山之無狀累蹤, 何以得此於今日也. 只有感淚被面而已. 有非語言文字, 所得說到者也. 况又拙書之 特紆宸眷, 至於紙本之下來, 龍光所被, 大海神山無不震動. 近因眼花轉, 萬無由執筆臨池. 王靈攸暨, 費得十五六日工力, 僅得寫就扁三卷三. 而餘外二卷, 以若花翳, 萬萬無續寫之道, 未免還爲呈納.

兩扁, 皆以西京古法寫得, 頗有雄氣之力, 不似病中所作. 是爲 王靈所及, 似有神助, 非拙陋所可能.³⁴⁾

추사는 유배인의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임금 憲宗으로부터 글씨를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이를 받고는 눈물에 젖는다. 이러한 부탁은 그의 서예가 당대에 독보적임을 반증하고 있으며, 또 임금의 관심과 보살핌이라는 후광이 있어 조만간에 유배에서 풀릴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隸法은 가슴속에 淸高古雅한 뜻이 들어 있지 않다면 손에서 나올 수 없고, 가슴속의 청고고아한 뜻은 또 가슴속에 文字香과 書卷氣가 들어있지 않으면 능히 팔뚝과 손가락에 발현되지 않으며, 또 심상한 楷書 같은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모름지기 가슴속에 먼저 文字香과 書卷氣를 갖추는 것이 隸法의 기본이며 隸書를 쓰는 神訣이 된다.

且隸法, 非有胸中淸高古雅之意, 無以出手, 胸中淸高古雅之意, 又非有胸中文字香書卷氣, 不能現發於腕下指頭, 又非如尋常楷書比也. 須於胸中, 先具文字香書卷氣, 爲隸法張本, 爲寫隸神訣.³⁵⁾

그는 隸書를 쓰는 비결은 우선 가슴속에 淸高하고 古雅한 뜻이 있어야 하고, 가슴속의 청고고아한 뜻은 또한 가슴속에 「文字의 香氣(文字香)」와 「書卷의 기운(書卷氣)」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두 마디는 후인들에게 커다란 나침반 구실을 하고 있다. 隸書만이 아니라 전체 書法이 다 그렇고, 문장도 문학도 학문도 다 이와 통한다.

한편 이동주는 추사체가 제주에서 완성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많이 썼을 거예요. 아마 심심해서 쓰고 화가 나서 쓰고, 쓰고 싶어 쓰고, 마음 달래려고 쓰고 그 실력과 그 학식에 그렇게 써냈으니 일가를 이루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었다는 계기가 추사체의 비밀이겠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썼다는 것, 울적한 심사를 달래려고 썼건 그걸 쏟아내려고 썼건, 원래 예술로서 글씨란 남을 위하여 혹은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제는 그런 제3의 계기를 차단해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성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³⁶⁾

34) 〈與舍季相喜, 其七〉, 『국역완당전집1』(술출판사, 1998), p.144. [原典影印] 『阮堂先生全集』卷二, p.64.

35) 〈書示佑兒〉, 『국역완당전집2』(술출판사, 1996), p.338. [原典影印] 『阮堂先生全集』, 卷七, 雜著, p.122.

이렇듯 제주도에서 추사체가 완성된 이유는, 바로 추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진정 자신을 위한 학문, 예술을 했기 때문이다. 바로 「爲己之學」이기 때문이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流水巖 마을의 姜生이 내가 쓴 붓글씨 두어 장을 벽에 붙였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무지개가 떠오르면서 마치 빛을 내뿜는 듯 기이하였다. 그리하여 보는 자가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붓글씨 정기에서 나오는 기운'이라고 했다. 이것은 우연히 산골짜기 사이에서 정기가 축적되어 뿔어져 나와 서로 감응해 뿔치는 것이지, 어찌 종이에서 무지개가 일어날 이치가 있겠는가? 이를 써서 섬 아이에게 보여 의혹을 풀어준다. 五臺山과 峨嵋山の 佛燈도 이와 같을 것이다.

流水巖姜生, 以余書數紙, 貼之壁上, 其朝忽有虹見之異, 若放光然, 見者驚詫, 以爲筆精所發, 是偶然有山谷間精氣所蓄, 洩相感觸之, 寧有紙面起虹之理, 書此示島童輩以解之, 五臺峨眉之佛燈, 亦類是也.

李杜光芒未可追, 李白과 杜甫의 광휘는 따라갈 수 없고
米芾書畫詎同之. 米芾의 書畫와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偶然流水村家壁, 우연히 流水巖 마을의 촌집 벽에
有此干霄射斗奇. 이렇듯 하늘의 북두성을 찌를 듯한 기이한 기운 있었네.³⁷⁾

추사의 제자 姜生의 집 벽에 붙인 추사의 붓글씨에서 무지개가 떠오르면서 빛을 발하자, 사람들은 '붓글씨의 정기에서 나오는 기운'이라 하였다. 이에 추사는 '산골짜기의 정기가 축적되어 나온 것'이라고 자못 이성적인 해명을 하고 있다. 여기서 추사 글씨의 생동하는 힘과 추사 자신의 이성적인 인식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시에서 추사는 唐代의 최고 시인 李白, 杜甫의 光輝를 따라갈 수 없고, 北宋의 서화가 米芾의 서화에 미치지 못한다고 겸손해 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연히 '그림 속에 북두성을 찌를 듯한 기이한 기운이 있었으리라'고 하여 우연성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사람들이 본 것이 약간의 강조나 과장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쩌면 직접 본 사람들의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추사의 말이 겸사일 것이다. 한편 추사의 붓글씨가 광채가 나는 神筆이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겠다.

작년에 『大運山房文庫』, 『晚學集』 두 종류의 책을 부쳐 왔고, 금년에는 또 『皇朝經世文編』을 부쳐 왔는데, 이는 다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머나먼 천만리 밖에서 여러 해를 걸러 구입한 것이지, 한 때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온 세상의 풍조는 오직 권세, 이익만을 쫓는데, 이와 같이 心力을 허비하고도 권세와 이익에 돌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바다 밖의 한 초채하고 枯槁한 사람에게 돌리기를, 마치 세상이 권세와 이익에 쫓는 것과 같이하니, 어인 일 인지요.

36) 1990년, 이동주의 연세대 대산기념관에서 「한국회화사 특강」의 녹음테이프, 유홍준, 『완당평전2』(도서출판 학교재, 2002), pp.466-467, 재인용.

37) 〈示島童, 並序〉, 『국역완당전집3』(술출판사, 1996), p.24. [原典影印] 『阮堂全集』, 卷十, p.60.

太史公이 말하기를, “권세와 이익으로 어울리는 자는 권세나 이익이 다 떨어지면 사귀이 성
글어진다”고 하였는데, 그대 역시 세상의 풍조 속에 한 사람인데, 어찌 초연히 스스로 권세와
이익의 테두리 밖에 벗어나서 권세와 이익을 가지고 나를 보지 않지요. 태사공의 말이 잘못된
것인가요? 孔子님의 말씀에 “歲寒을 만난 연후에야 松柏의 늦게 시듦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송백은 바로 四時를 일관하여 시들지 않는 것으로서 歲寒 이전에도 하나의 송백이었고, 歲寒
이후에도 하나의 松柏인데, 성인은 특히 歲寒 이후를 들어 칭하였지요.

지금 그대는 나에 대해 이전이라서 더함도 없었고, 이후라서 덜함도 없었소. 그러나 이전의
그대는 칭할 게 없다면 이후의 그대는 또한 성인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겠소. 성인이
특별히 칭한 것은 한갓 後凋의 끈은 지조, 굳센 절개 때문만도 아니라 역시 歲寒의 때에 感發
된 바 있어서인 것이지요.

아! 西漢같은 순후한 세상에 汲黯, 鄭當時 같은 어진 이로도 賓客이 시세와 더불어 성하고
쇠하곤 하였으며, 下邳 사람이 때문에 붓글씨로 방을 써서 건 일³⁸⁾ 같은 것은 박절함이 너무
도 극단적이었으니, 슬픈 일이오.

去年以大雲晚學二書寄來, 今年又以藕耕文編寄來. 此皆非世之常有, 購之千萬里之遠, 積有年
而得之, 非一時之事也. 且世之滔滔, 惟權利之是趨, 爲之費心費力如此, 而不以歸之權利, 乃歸
之海外憔悴枯槁之人, 如世之趨權利者.

太史公云, 以權利合者, 權利盡而交疏. 君亦世之滔滔之一人, 其有超然自拔於滔滔權利之外,
不以權利視我耶. 太史公之言非耶. 孔子曰, 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 松柏是貫四時而不凋者. 歲
寒以前, 一松柏也, 歲寒以後, 一松柏也. 聖人特稱之於歲寒之後, 今君之於我, 由前而無加焉, 由
後而無損焉, 然由前之君, 無可稱, 由後之君, 亦可見稱於聖人也耶. 聖人之特稱, 非徒爲後凋之
貞操勁節而已, 亦有所感發於歲寒之時者也.

於乎, 西京淳厚之世, 以汲黯之賢, 賓客與之盛衰, 如下邳榜門, 迫切之極矣, 悲夫.³⁹⁾

추사의 〈歲寒圖〉에 내재된 정신과 예술적 가치를 인식한 淸儒 16家が 혹은 시로, 혹은 文을
지어 추사와 그의 제자 李尙迪 양인의 고귀한 정신과 그림의 예술세계를 기념하고 있다. 이 그림
에는 이후 金석준의 贊, 오세창과 李始榮의 跋文이 더해져 작품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⁴⁰⁾

38) 汲黯: 漢代의 諫臣(忠諫하는 신하). 性情이 심히 엄격하여 直諫을 잘하여 武帝로부터 옛날의 社稷의 신하에 가깝
다는 평을 들었음. 鄭當時: 漢代의 官名. 任俠客을 좋아하였으며, 武帝 때 大農令에 이르렀음. 『국역완당전집1』
(술출판사, 1998), 卷四, p.88, 註335. 文基善, 〈秋史論: 書法과 歲寒圖〉, 『제주문화의 재조명』(도서출판 一念,
1986), p.318, 참조.

翟公(적공): 西漢 하규下邳(지금의 섬서성 渭南縣 동북)人, 文帝때 廷尉가 되었다. 廷尉: 漢代의 官名, 九卿의 하
나. 漢代 최고의 사법관. 법과 형벌을 담당하던 大臣.

『史記·汲黯列傳·贊』: “태사공은 말하였다. 「汲黯(汲黯)이나 정당시(鄭當時)와 같은 현인에게도 권세가 있으면
빈객들이 열 배로 불어나고, 권세가 없으면 그렇지 못하였다.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야 어떠하겠는가! 하규(下邳)
의 적공(翟公)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처음 적공이 정위(廷尉)가 되었을 때에는 빈객들이 대문을 가득 메
웠다. 그가 벼슬에서 물러나자 대문 밖에서 참새를 잡는 그물을 쳐도 될 정도였다. 그러다가 적공이 다시 정위가
되자 빈객들이 그와 교제하려 하였는데, 적공은 이에 그의 대문에다 크게 써 붙였다. ‘한번 죽고 한번 살아나 보아
야만/ 사귀는 정을 알게 되고,/ 한번 가난해졌다 한번 부유해져 보아야/ 사귀는 태도를 알 수 있고,/ 한번 귀한
지위에 있다가 한번 천한 신분이 되어야만/ 사귀는 정이 드러난다.’라고.”(太史公曰「夫以汲黯之賢, 有勢則賓客十
倍, 無勢則否, 況衆人乎! 下邳翟公有言, 始翟公爲廷尉, 賓客闐門, 及廢, 門外可設雀羅. 翟公復爲廷尉, 賓客欲往,
翟公乃大署其門曰: ‘一死一生, 乃知交情. 一貧一富, 乃知交態. 一貴一賤, 交情乃見.’)”)

39) 〈與李藕耕船尙迪, 其五〉, 『국역완당전집2』(술출판사, 1996), p.87. [原典影印] 『阮堂先生全集』, 卷四, p.32.

40) 유흥준, 『완당평전1』(도서출판 학고재, 2002), pp.393-407.

이 글에서는 옛 선비의 사림의 모범을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출세할 때는 사람들이 주위로 모여들다가, 그 사람이 지위와 권세를 잃게 되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炎涼世態가 세상의 풍조이다. 그러나 추사의 제자 李尙迪은 유배 온 스승 추사에게 변함 없이 恒常性을 지니고,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는 길에 많은 귀한 책들을 부쳐 주었다. 이에 감동하여 추사는 천고의 명품 〈歲寒圖〉를 이상적에게 그려주고 덧붙여 이 글을 써주어 그를 기리고 있다.

난초를 치는 법은 또한 隸書 쓰는 법과 가까워서, 반드시 文字香과 書卷氣가 있는 후에 라야 얻을 수 있다.

난을 치는 데는 종이 서너 장을 넘지 않아야만 한다. 神氣가 모여들고 境遇가 무르녹아야 하는 것은 글씨나 그림이 모두 똑같지만, 난초를 치는 데는 더욱 심하거늘, 어떻게 많이 얻을 수 있겠느냐.

난을 치는 데는 반드시 붓을 세 번 굴리는 것을 妙로 삼는 것인데, 이제 네가 친 것을 보니 붓을 한 번에 죽 굶고는 바로 그쳤더구나. 모름지기 붓을 세 번 굴리는 곳에 공력을 쓰는 것이 좋겠다.

蘭法, 亦與隸近, 必有文字香書卷氣然後, 可得.

寫蘭, 不得過三四紙. 神氣之相湊, 境遇之相融, 書畫同然, 而寫蘭尤甚, 何有多得也.

寫蘭, 必三轉爲妙, 今見汝所作, 一抽筆即止. 須於三轉處, 用工爲佳.⁴¹⁾

추사는 난초그림을 그리는 정신과 방법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는 평소 문자의 향기(文字香)와 書卷의 기운(書卷氣)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그림은 꼭 그리고 싶은 흥취가 날 때만이 그려야 되지, 아무 때나 그려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제주도 유배시기 추사의 한시문에는 제주도와 관련된 당시의 해외정세와 학문의 논쟁정신 실천에 대한 깊은 관심이 담겨 있다.

IV. 결 론

본문은 추사의 濟州島 유배기간에 지은 한시문을 소동파와 관련시켜 연구한 것이다. 우선 작자가 열악한 환경의 유배지를 벗어나 정치중심지로 회귀하려는 마음이 시종일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동시에, 유배지에서 인연에 따라 살려고 하는 적응의지도 나타나고 있다. 그에게는 질병, 외로움, 심지어 아내의 죽음에도 갈 수 없는 恨 등 隔絶의 심경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때 벗어나 가족으로부터의 편지는 큰 위안이 되고 있다. 또 虛心으로 번뇌에 대응함,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신선세계임, 그리고 “마음에 瘴氣가 끼지 않으면 어디가나 淸淨法界가 아닌가” 등과 같은 發想의 轉換을 통해 超脫을 지향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41) 〈與佑兒〉, 『국역완당전집1』(술출판사, 1998), p.154. [原典影印] 『阮堂先生全集』, 卷二, p.69.

추사는 許小癡가 그린 〈東坡笠履圖〉와 〈阮堂先生海天一笠像〉의 유사함이 상징하듯이, 중국 북송대의 문인 소동파의 생애와 문학이 자기와 유사점이 있다고 인식하여, 東坡와 유사한 경지를 만나면 시구를 인용하거나 변용하였다. 심지어 동파의 초상화를 자신의 護身符로 삼고 있다. 이렇듯 의식 무의식간에 동파와 같아지려고 노력했으며, 또한 닮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굴, 감로수, 수선화 등 본토와는 다른 제주의 자연초목을 발견하고 매료되고 있다. 특히 수선화가 토착민에게 팔시받는 것을 통해, 자아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수선화가 제 위상을 차지하기를 염원함을 통해 자신도 제 위상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

당시 〈歲寒圖〉에 담겨진 글에도 보듯이 추사의 사제간의 우의, 그리고 영달했건 궁했건 상관 않고 恒常心을 보였던 옛 선비의 삶의 자세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추사는 자신의 고독, 恨, 그리고 번뇌를 독창적 예술세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추사가 淸高古雅한 뜻과 文字香과 書卷氣, 그리고 神氣의 예술세계를 강조한 것처럼, 그의 서화예술 작품에도 이것들이 무르녹아 있어, 이론과 실천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서 추사체가 완성된 것은 바로 그의 예술정신의 상징이니, 곧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정신을 위한 “爲己之學”이기 때문이다.

추사는 동파의 “어디를 가든지 즐겁지 않을손가(安往而不樂)”적인 낙천적인 기질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동파에 비해 그에게는 어두움과 고통의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유배의 고통에 허덕이면서도 주위를 응시하고 학문과 예술에 정진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된다.

곧 추사는 유배라는 테두리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예술세계에 심취하여 독창적인 예술정신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점이 돋보이고 있다. 서법에 있어 학문과 氣, 그리고 개성을 중시하여 秋史體를 완성하였으며, 회화에서도 〈歲寒圖〉, 蘭畫 등 정신을 중시한 역작을 내어, 궁할수록 더욱 고도의 예술세계를 형상화시킬 수 있었다.

요컨대, 그는 유배지에서도 고뇌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초탈하고자 했으며, 위대한 문학으로 승화시키고, 문학예술을 통해 자기완성을 지향했다. 이는 “자기자리를 얻지 못함(不得其所)”로부터 “자기 자리를 얻기(得其所)”를 향한 추구이다. 그리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 (淸) 王文誥 輯注,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全8冊), 中華書局, 北京, 1987.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全6冊), 中華書局, 北京, 1990.
 金正喜 著, 선종순 편, 『국역완당전집4』(解題와 索引), 民族文化推進會 編, 솔出版社, 서울, (1996, 初版). 1997. 12.(重版2刷).

- 金正喜 著, 신호열 編譯, 『국역완당전집2』(原典影印本『阮堂先生全集』), 民族文化推進會 編, 솔
 出版社, 서울, (1995, 初版). 1996. 11. (重版1刷).
- 金正喜 著, 신호열 編譯, 『국역완당전집3』(原典影印本『阮堂全集』), 民族文化推進會 編, 솔출판
 社, 서울, (1995, 初版). 1996. 11. (重版1刷).
- 金正喜 著, 임정기 譯, 『국역완당전집1』(原典影印本『阮堂先生全集』), 民族文化推進會 編, 솔출
 版社, 서울, (1995, 初版). 1998. 7.(重版3刷).
- 金正喜 著, 鄭後洙 譯, 『秋史 金正喜詩 阮堂先生全集』, 圖書出版 풀빛, 서울, 1999. 4.
-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新誠文化社: 서울, 昭和9년.
- 梁淳秘, 『濟州流配文學研究』, 圖書出版 濟州文化, 濟州, 1992.
- 梁鎮健, 『그 섬에 流配된 사람들 - 濟州島 流配人 列傳』, 文學과 知性社, 서울, 1999. 10.
- 王水照 選注, 『蘇軾選集』,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84.
- 龍榆生校箋, 『東坡樂府箋』, 華正書局: 臺北, 1990. 3.
- 유홍준, 『완당평전(1-3)』, 도서출판 학교재, 서울, 2002 .2.
- 이동주, 『우리나라의 옛 그림』, 도서출판 학교재, 서울, 1995.
- 崔完秀, 『金秋史研究』, 知識文化社, 서울, 1976.
- 鄒同慶, 王宗堂, 『蘇軾詞編年校註』, 中華書局, 北京, 2002. 9.
- 許小癡 著, 金泳鎬 編譯, 『小癡實錄』, 瑞文堂, 서울, 1976. 3.
- 文基善, 〈秋史論: 書法과 歲寒圖〉, 『濟州文化의 再照明』, 도서출판 一念, 1986. 8.
- 梁淳秘, 〈秋史의 濟州流配漢詩〉, 濟州大學校 論文集, 第14輯, 1982. 7.
- 梁淳秘, 金奉玉,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文學 研究〉, 濟州大學校 論文集, 第32輯, 1991. 6.
- 梁淳秘, 梁鎮健, 〈秋史의 濟州 教學活動 研究〉, 耽羅文化, 第6號, 1987.
- 俞弘濬, 〈秋史 金正喜(1-6)〉, 歷史批評, 1998, 봄號 - 1999, 가을號.

〈Abstract〉

A research on Chusa Kim Junghee(秋史 金正喜)'s literary world about
 Chinese poetry and prose during his exile in Jeju Island(濟州)
 - Also concerning a Chinese poet Su Dongpo(蘇東坡) -

This paper studies Chusa Kim Junghees literary world about his Chinese
 poetry and prose, concerning Su Dongpo, a Chinese poet. According to

his literary world written during his exile in Jeju Island, Chusa Kim Junghee expressed his will to be adapted to his exile life, trying to return to political life. He had a tendency of transcendence through the change of his mood about diseases, loneliness, sorrow and regret. Chusa tried to follow Su Dongpos literary and life, based on Su Dongpos life pattern. He showed his individuality in his literary works. Chusa found his noble mind in daffodils which were ignored by local people. He expressed his own distinctive art world through his calligraphy and orchid paintings. He gave his works configuration.

In summary Chusa Kim Junghee tried to find his ego through transcendence during his exile life and aimed to complete his life through his literary life.

Key Word : Chusa, transcendence, Su Dongpo, Jeju Island, Daffodils, Distinctive art world